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3 No.3 Serial No.104 _ 2014. 06
http://dx.doi.org/10.14774/JKIID.2014.23.3.212

소규모 미술관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요소에 관한 연구

-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henomenological Elements Appearing in Small-Scale Art Museums

- From the Viewpoint of Phenomenology of Perception of M. Merleau-Ponty -

Author
최진석 Choi, Jin-Seok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 설계학과 박사수료
김문덕 Kim, Moon-Duck / 명예회장,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건축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explore phenomenological elements that appear in small-scall art museums with spatial concepts, such as top and bottom, depth, movement, and experienced space on the basis of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Therefore, small-scale art museums may be regarded as an ideal space that can be analyzed with Merleau-Ponty's phenomenological theory since they should provide viewers with various spatial experiences in a limited space, breaking away from spatial limitations beyond appreciation of artworks. As research subjects, the range of art museums was limited to ones whose designs architectures or interior designers participated in out of all the small-scale art museums constructed after the 1990s, when the concepts and directing methods of spatial experience elements started being applied to art museums. Small-scale art museums chosen as cases were analyzed with Merleau-Ponty's spatial concepts explained earlier, and this study drew conclusions for each on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efficient materials to reflect phenomenological elements on planning future small-scale art museums through further studies on various small-scale art museums.

Keywords
소규모 미술관, 현상학, 메를로 퐁티, 공간 체험
Small-Scale Art Museum, Phenomenology, Maurice Merleau-Ponty, Space Experien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서 경제적 발전과 생활의 질 향상을 배경으로 문화 소비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 소비 계층의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의 증대는 문화 콘텐츠를 전달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시설보다는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술관 또한 이러한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미술관이 아닌 소규모의 미술관이 많이 생겨나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해오던 순수한 갤러리의 기능을 벗어나 미술관을 이용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간적, 사회적 장치로써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소규모 미술관은 다양한 기능적 측면 외에도 소규모라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실내 공간 전체에 걸쳐 공간 체험을 중요시 하여 디자인 되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된 공간은 공간을 사용하고 체험하는 주체인 관람자 즉, 인간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사물을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1]의 현상학적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건축이 가지는 물리적, 객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상적 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때문에 작품을 관람하는 것 이외에 소규모 공간의 한계를 탈피하고 주어진 공간에서 관람자에게 다양한 공간 체험과 경험을 주어야 하는 소규모 미술관은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이론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가 또는 실내디자이너가 참여하여 공

1) 현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현상학적 기술(記述)을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기도한 저서 《지각의 현상학》을 썼다. 사르트르, S. de 보부아르 등과 더불어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대표적 이론가다.

간 체험요소가 반영되게 설계한 소규모 미술관과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특성과 요소를 메를로 퐁티가 이야기한 상·하, 깊이, 운동, 체험된 공간의 요소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상학적 요소가 관람자에게 어떠한 공간적 효과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계획되는 소규모 미술관에 현상학적 요소가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공간 사유는 1980년대 이후 현대 건축가들에게 공간 체험요소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소규모 미술관과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특성과 요소를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분석 대상은 현상학적 공간 사유의 영향으로 공간 체험 요소의 개념과 연출 방법이 미술관에 적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의 소규모 미술관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메를로 퐁티의「지각의 현상학」[2]을 바탕으로 현상학과 현상학적 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정리한다. 둘째, 소규모 미술관과 실내공간에 이론적 고찰을 통한 현상학적 공간 개념의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 특성에 대한 분석의 틀을 만든다. 셋째, 위에서 작성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사례대상 미술관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미술관 및 실내공간의 현상학적 요소와 특성을 파악, 분석틀에 대입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2.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

2.1. 현상학의 이론적 배경

현상학이라는 용어는 철학사 상 많은 학자들이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다. 1764년《신기관》에서 현상학이란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독일의 철학자 람베르트(J. H. Lambert, 1728~1777)는 본체(本體)의 본질을 연구하는 본체학과 구별하여 본체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현상학이라고 하였다.[3] 이후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을 중심으로 한 현상학자들의 철학운동을 통해 사물의 본질에 대한 현상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후설의 현상학은 인간존재를 '세계 내 존재'로 파악하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샤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의 실존철학에 계승되었다. 메를로 퐁티 또한 후설과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 몸(corps)의 개념을 도입한 지각의 현상학을 정립하게 되었다.

2.2. 메를로 퐁티의 공간론

메를로 퐁티는「지각의 현상학」에서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에 대해 기하학적인 공간이 유일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경험주의는 공간을 '공간화 된 공간'으로 보는 반면 지성주의는 공간을 '공간화 하는 공간'으로 보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4] 자신의 현상학적 태도를 '제3의 공간성'[5]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스트래튼의 실험을 토대로 공간의 순수한 위치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상하, 깊이, 운동과 같은 공간적 요소들을 신체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여기서 메를로 퐁티가 강조하는 것은 공간이란 우리의 지각[6] 경험과 동떨어져서 미리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아니며, 우리 지성의 산물도 아니라는 것이다.[7] 메를로 퐁티의 공간론의 핵심은 기하학적인 공간이 공간의 실체라는 사실에 대한 반박이다. 기하학적 공간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공간으로 간주되지만 이러한 기하학적 공간 또한 우리의 몸이 공간적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다.[8] 위에서 이야기한 '현상학적 공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하

메를로 퐁티는 스트래튼의 안경 실험과 베르트하이머의 거울의 방 실험을 통해 공간적 지평은 항상 어떤 '정박점'을 통해 가능하며 정위는 지각하는 주체의 전체적 행위에 의해 구성된다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 정위는 사물의 고유방향인 위, 아래, 좌, 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공간의 상황과 나의 위치를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메를로 퐁티는 "나의 신체는 나의 지각이 나에게 가능한 한 다양하면서 명확히 분절된 광경을 제공하고, 나의 운동 의도들이 그 전개와 함께 기대하는 반응들을 세계로부터 받아들일 때 세계를 파악한다."[9]라고 공간속의 주체로서의 신체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였

2) M.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002

3) http://terms.naver.com

4) 박영욱,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9, pp.58-59

5) "제3의 공간성, 즉 사물이 공간 속에 있다는 공간성도 아니고 공간을 공간화 한다는 공간성도 아니며 상대적인 것 속에 있는 절대적인 것, 현상들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 그들 속에 정박해 있고 그들에 의해 견고해지며 실재론적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 스트래튼의 실험이 보여주는 대로, 그들의 혼란에서 살아남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M. Merleau-Ponty, op. cit., p.377

6) 추상화된 눈에 의해서 시각적 경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반적인 몸의 개입에 의해서 시각적 경험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총체적인 시각의 체험을 '지각'이라고 부른다, 박영욱, op. cit., p.56

7) Ibid., p.71

8) Ibid., p.78

9) M. Merleau-Ponty, op. cit., p.381

다. 즉 공간의 지각은 공간의 주체로서의 신체의 체험과 공간, 사물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깊이

깊이는 우리의 눈에 새겨질 지라도 감각적 인상은 시야에 도착하는 다양성 자체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여타의 공간적 관계들처럼 거리는 종합을 파악하고 사고하는 주체에 대해서만 존재하며, 깊이는 암묵적으로 측면에서 고찰된 너비와 같고, 이것이 바로 깊이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10] 메를로 퐁티가 말하고 있는 깊이의 개념은 나와 사물과의 관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 자체 사이에서 보이는 높이와 축이라 하여도 파생적인 공간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원초적 의미에서는 역시 나와 주체와 관계한 어떠한 공간적 차원보다 더 실존적 차원이라 할 수 있다.[11] 즉 공간적 깊이는 상하의 개념보다 우리의 체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깊이는 공간 자체가 우리 몸의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측면에서 본 너비가 아닌 주체의 동기화에 의해 만들어진다. 메를로 퐁티에 의하면 외형적 크기와 수렴은 객관적 관계의 체계상의 요소처럼 주어질 수 없다. 따라서 깊이로의 조직화는 객관적 사실에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형적 크기와 눈의 수렴을 과학적 지식이 인식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파악하는 대로 기술해야한다.[12] 깊이란 신체와 사물의 관계인 것이다.

(3) 운동

운동은 바로 그 운동에 의해 규정될 수 없을지라도 장소의 이동 또는 위치의 변화이다.[13] 메를로 퐁티는 운동의 현상을 파악할 때 무엇보다도 사물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전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원초적 지각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지각의 현상학」에서 말한 운동의 상대성에 관한 설명처럼 나의 눈과 대상의 관계는 대상이 눈에 투사되는 기하학적 형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시각에서는 아직 모호하나 내가 대상을 집중할 때는 보다 간결 명확해지는 그런 대상에 대한 눈의 파악으로서 주어지고, 주체의 시선에 따라 대상을 운반 하고 이동시킨다.[14] 현상학적 운동은 내가 어느 대상을 향하여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지각이 달라지며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나의 신체에서 나타난다.

(4) 체험된 공간

메를로 퐁티는 기하학적인 공간이 아닌 공간인 밤의 공간이나 신화적 공간 혹은 성적 공간 등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공간 역시 기하학적 공간과 마찬가지로 실재 공간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깜깜한 밤에 느끼는 원근감이 결여된 공간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신성한 공간으로 보는 신화적 공간 등은 단순히 우리의 주관적인 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인 공간이 아니다.[15] 공간의 지각은 특수한 종류의 '의식 상태' 또는 '작용'이 아니다. 그 양상들은 언제나 주체의 모든 삶을 표현하고 주체가 자신의 신체와 세계를 통하여 미래를 향할 때 같이하는 에너지를 표현한다.[16] 모든 공간적 체계는 우리의 일상적 체험의 표현이자 동시에 우리의 몸이 세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능적 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공간은 우리의 지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17] 또한 모든 경험의 근본은 체험된 공간이 전제되고 이러한 공간의 체험은 연속적 이며 동시적이다. 메를로 퐁티의 공간론은 단순한 기하학적 공간의 거부가 아닌 기하학적 공간을 유일한 실재 공간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입장에 대한 거부이며 더 나아가 공간의 체험과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로서의 신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3. 소규모 미술관의 현상학적 요소

3.1. 소규모 미술관의 특성

미술관은 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의 헌장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등의 활동이외에 일반대중을 위한 사회교육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대에 따라 그 존재의 개념과 기능은 물론 사회적 역할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일반적으로 미술관은 예술 작품을 소장하는 전문 미술박물관으로서 박물관이라는 상위 개념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18]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 이르러 경제의 안정과 대중의 삶의 질에 대한 성장으로 문화시설이 발전화고 다원화됨에 따라 중·소규모의 미술관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소규모 미술관은 대부분 상업적 갤러리였으나 IMF 경기침체로 인해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현대적 의미의 공공적 미술관이 적극적으로 대중과의 접촉을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1) 소규모 미술관의 규모

현대의 미술관은 그 성격이 점점 전문화됨에 따라서

10) Ibid., p.387
11) 김광현,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으로 조명한 한국전통 건축의 공간 적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7, pp.50-51
12) 곽문정,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지각 방법을 통한 체험된 건축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권 1호, 2005, p.53
13) M. Merleau-Ponty, op. cit., p.405
14) Ibid., pp.421-422
15) 박영욱, op. cit., p.78
16) M. Merleau-Ponty, op. cit., p.428
17) 박영욱, op. cit., p.78
18)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000, p.18

미술관의 공간도 다양한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서상우(1988)[19], 박석수(1994)[20], 건축자료연구회(1992)[21] 에서는 소규모 미술관의 규모를 연면적 1000~2000㎡ 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미술관의 규모도 변화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2008년에 연구된 이성훈(2008)[22]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면적 1,000~3,000㎡의 미술관을 소규모 미술관의 규모로 한정하였다.

<표 1> 미술관의 규모

규모	특대규모	대규모	중대규모	중규모	중소규모	소규모	극소형
연면적 (㎡)	40,000 이상	20,000 - 40,000	10,000 - 20,000	5,000 - 10,000	3,000 - 5,000	1,000 - 3,000	1,000 미만

(2) 소규모 미술관의 기능

소규모 미술관은 현대적 미술관이 가지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문화적 행사를 기획하여 대중적인 개방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고 문화, 예술 분야의 다양성에 따른 압축된 주제로의 전시 범주를 좁혀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전시형태를 채택하여 대중과의 적극적인 문화접촉을 활성화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주제별 전시의 다각적인 기획을 통하여 예술적 환경을 확대함으로서 대중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 다른 사회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그 사회의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휴식과 교양을 제공하는 공공시설로 인식되어 공원이나 휴게소처럼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다.[23]

3.2. 소규모 미술관의 현상학적 요소

앞에서의 설명처럼 소규모 미술관은 소규모라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미술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규모 미술관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인식됨은 물론 관람자에게는 현상학적 특성을 통한 공간 체험의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내부에 전시되는 작품 이상의 가치를 관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음은 2장에서 거론했던 메를로 퐁티의 공간론인 상·하, 깊이, 운동, 체험된 공간의 현상학적 요소들을 소규모 미술관 분석에 대입한 내용이다.

(1) 상·하 에서의 <정박>과 소규모 미술관

메를로 퐁티의 공간론 상·하에서는 물리적 방향성으로의 상·하 관계가 아닌 정박에 관해서 중요하게 논의 하고 있다. 공간은 우리의 몸이 정박해 있는 질서의 표현인 셈이며 우리의 몸은 미리 주어진 공간에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은 우리의 몸이 정박하고 있는 방식대로 만들어지는 것[24] 이라는 설명과 함께 정박을 통해 인간이 지각적으로 세계와 관계 맺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차후 건축가 스티븐 홀 등에게 영향을 주어 건축적으로 표현[25]하게 되었으며 건축적 개념으로서 정박을 건물과 대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26]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소규모 미술관과 상·하 요소에서는 소규모 미술관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 장소적 의미를 분석 하고자 한다.

(2) 깊이의 요소와 소규모 미술관

일상적으로는 '원근'이 더 쉽게 이해됨에도 메를로 퐁티가 굳이 '깊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세계가 마치 스크린과 같은 수직의 균질한 평면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전면을 볼 때 오목한 홈과 볼록한 돌기로 이루어진 깊이는, 측면에서 볼 때 시선에서 멀고 가까운 '거리'가 된다. 게다가 같은 상태라도 '거리'라는 표현은 세계를 평면으로 간주하는 오해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깊이'는 3차원의 공간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용어다.[27] 공간에서의 깊이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에 의해 종합적으로 체험 하게 된다. 관람자의 움직임에 의해 경험되는 미술관 공간에서의 깊이는 물리적으로 구축된 의도적 환경에 의해 인지된다. 이러한 깊이의 경험은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 이미 의도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공간에서의 시각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점의 위치보다는 건축가가 의도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의 깊이를 지각시키는데 가장 공통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는 원근감이다. 여기에

19) 서상우, 현대의 박물관 건축에 관한 계획적인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88, p.262
20) 박석수, 미술관 건축의 규모계획을 위한 면적배분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94, p.83
21) 건축자료연구회, 건축설계자료실례집 13, 보원, 1992, p.15
22) 이성훈, 공간구문론적 해석에 의한 미술관 공간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8, p.70
23) 최진석, 국내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공간 체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2권 3호, 2010, p.171
24) 박영욱, op. cit., p.68
25) 스티븐 홀은 그의 책 '정박(Anchoring, 1989)', '얽힘(Intertwining, 1996)'을 통해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한 정박은 메를로 퐁티가 말한 공간에서의 몸의 정박을 건축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그 의미가 상통한다.
26) 스티븐 홀은 "하나의 건축이 각각의 고유한 대지와 상황에 따라 형성된 다는 주장은 우리 작업의 중심으로 남아있다. 정박을 통해서 건축은 의미를 특정한 대지 -땅, 장소, 지역- 의 역사 속으로 기능적, 사회적 프로그램을 압축한다." 라고 하면서 건축개념에서의 '정박'을 건물과 대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Steven Holl, 'Intertwin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p.7
27) 신호재, 현상학적 공간구성에서 '깊이' 지각 -후설의 '촉발적 부조'와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여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64권, 2010, p.132

정도가 다른 텍스쳐가 가미되면 더욱 효과적이다.[28] 원근감에 의한 공간의 깊이는 <그림 1>[29]의 빛에 의한 깊

<그림 1> 빛과 깊이 <그림 2> 착시와 깊이 <그림 3> 중첩과 깊이

이감 변화나 색채, 형태, 질감 등에 의해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으며, 단위공간에서는 투시 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공간의 깊이감은 증대된다. 또한 <그림 2>[30]의 열주 등을 통한 공간의 착시효과나 한 오브제가 또 다른 오브제를 가리면서 그것 앞에 놓이게 하는 물리적 장치인 <그림 3>[31]의 중첩 또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깊이의 요소를 통한 소규모 미술관의 분석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간 깊이의 물리적 표현 요소를 찾고자 한다.

(3) 운동의 요소와 소규모 미술관

메를로 퐁티에 있어서 움직임에 대한 시지각은 생존에 있어서 근원적인 것으로, 몸과 가장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몸의 움직임이야말로 몸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모든 지각에 수반되는 것으로,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지각의 내용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건축 공간은 바로 인간이 그 안에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지는 거대한 빈 조각과 같은 것이다.[32] 인간은 움직이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을 지각하고 이들 간에 상호소통을 가능케 한다. 인간의 움직임은 우연한 사건과 다양한 경험의 역동적인 에너지로서 공간을 창조하고, 그 내부 공간은 인간의 움직임과 감성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다.[33] 미술관 공간에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의 대표 요소는 공간에서의 동선구조와 공간의 열림과 닫힘 효과이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공간적 연속성을 인식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무한히 분절된 장면들에 대한 누적적인 공간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그림 4>[34]에서와 같은 이동통로인 수직 동선으로서의 계단은 신체의 운동을 통한 시각적 경험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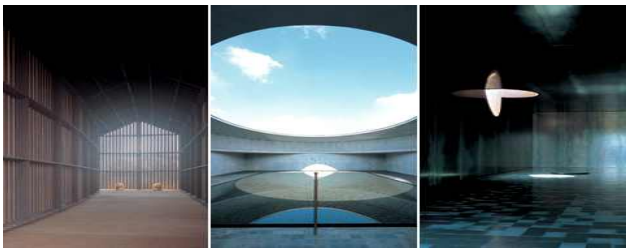
<그림 4> Gunter Behnsch, Museum for Post and Communication / Frankfurt

<그림 5> Ando Tadao, Museum of Wood / Hyogo

행위를 이끌어 낸다.[35] 또한 <그림 5>[36]와 같은 개구부를 사용한 공간의 열림과 닫힘의 효과는 운동을 통해 연속되는 공간 체험 중에서도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극적인 장치이다. 소규모 미술관의 운동요소 분석에서는 다양한 동선의 구성방법과 공간의 열림과 닫힘의 효과들을 정리 하고자 한다.

(4) 체험된 공간의 요소와 소규모 미술관

2장의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경험의 근본은 체험된 공간이 전제되며 이러한 공간 속 체험은 연속적이거나 동시적이다. 경험되는 공간은 더 이상 의식적이지도 반성적이지도 않다. 온몸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된다. 공간의 경험은 다른 모든 경험의 방식들, 다른 모든 심리적 소여들과 얽혀 있다.[37] 몸은 잠재된 몸과 실재의 몸으로 구분되며 실재의 몸이 시각장애를 느낄 때 잠재된 몸이 공간성을 회복한다.[38] 따라서 밤의 공간이나 성적 공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꿈과 감정도 공간지각으로 표현되고 실재의 공간이 된다. 건축공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밤, 환상, 신성함 등과 같은 공간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장치로서 <그림 6>[39]과 같이 상징물을 사용한 공간이나 빛과 어둠의 대비 또는 빛의 효과로 인해 경계가 사라지도록 하는 효과를 통해 탈공간적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소규모 미술관의 체험된 공간 요소에서는 미술관 내에서 관람자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공간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장치와 그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6> 이타미 준, 바람, 물, 돌 미술관 / 제주도

28) 홍유선, 시각구조분석에 의한 건축공간의 깊이 연구, 대한건축학회 연합논문집 13권 1호, 2011, p.37
29) Herni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Steven Holl, 2009
30) Museum of Modern Literature, David Chipperfield, 2006
31) Museum of Luz, Pedro Pacheco + Marie Clément, 2003
32) Zevi Bruno, ARCHITECTURE AS SPACE 공간으로서의 건축, 강혁역, 집문사, 1989, p.39
33) 김홍수,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으로 조명한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건축 공간 개념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2, p.86
34) 이미지 출처: http://www.behnisch-partner.de
35) 김홍기, 건축 조형 디자인론, 기문당, 2001, p.432
36) 이미지 출처: http://en.wikiarquitectura.com
37) M. Merleau-Ponty, op. cit, p.433
38) 이미경, 현대 공간디자인에서의 현상학적 특징과 가능성 :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2호 통권85호, 2011, p.12
39) 이미지 출처: http://www.vmspace.com

3.3. 소결

앞의 내용을 종합·정리해보면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공간론은 건축공간에서의 지각을 위한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소들마다 개념적인 차이는 가지고 있지만 상호 연관된 관계 속에서 공간을 지각하고 체험하게 한다. 소규모 미술관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관람자에게 공간 체험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미술관을 이용하는 관람자의 입장과 공간계획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지각의 주체로 바라본 현상학적 요소를 통한 공간의 분석은 중요한 논제라 할 수 있다.

4. 현상학적 요소로 접근한 소규모 미술관의 사례 분석

4.1. 사례선정의 배경과 범위

사례의 선정기준은 국내 소규모 미술관에 공간 체험 요소의 개념과 연출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의 소규모 미술관 중 연면적 3000㎡ 이하의 것이면서 건축가나 실내디자이너가 설계한 것으로 현상학적인 요소가 잘 반영된 <표 2>의 6개 소규모 미술관을 분석 대상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표 2> 사례선정 소규모 미술관 목록

	작품명	작가	위치	연면적(㎡)	작품년도
1	가나 아트센터[40]	Jean Michel Willmote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28	3023	1998
2	플라토 미술관	William Pedersen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1150	1998
3	아라리오 갤러리	김종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75길 22	1341	2001
4	의재 미술관	조성룡 김종규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81	1562	2001
5	이응노 미술관	Laurent Beaudouin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	1700	2007
6	지니어스 로사이	Ando Tadao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성리 182 섭지코지	1185	2009

4.2. 사례분석 방법

사례대상 소규모 미술관들은 연구자 본인의 직접적인 방문과 체험 및 도면분석과 선행연구논문, 실내디자인 관련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의 자료들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으로 각각의 사례대상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상·하의 공간론을 방향성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41]

<표 3> 현상학적 건축의 분석표[42]

구분	내용	주요관련 사항
건축 조건의 해석	대지	얽혀진 경험: 대상과 장(field)의 융합 도시 속의 위치, 주변 환경과의 관계, 장소적 의미
	프로그램	현상학과 건축개념의 연계, 상호연결의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의 현상학적 해석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이라는 건축물 자체가 가지는 현상학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방향성의 관점이 아닌 정박의 관점에서 위의 <표 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변 환경과의 관계와 장소적 의미로 분석하였다. 또한 체험된 공간의 요소는 사례대상의 다양한 공간성을 분석한 <표 4>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람자마다 서로 다른 공간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장치와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4> 메를로 퐁티의 공간성의 개념[43]

개념	내 용	특징
상황의 공간성	몸은 공간에 속해있으며 '몸' 자신이 상황에 처해져있을 때 진정한 공간이 성립됨을 의미한다. 몸은 잠재된 몸과 실재의 몸으로 구분되며 실재의 몸이 시각장애를 느낄 때 잠재된 몸이 공간성을 회복한다. 따라서 밤, 환상, 신성, 가상, 체험의 공간은 실재의 공간이다.	정박지
참여와 생산의 공간성	몸과 세계가 서로를 구조화하는 쌍방관계로 몸과 세계가 끊임없이 서로의 작용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역동적 체험의 과정으로 보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간은 몸의 움직임과 참여를 통해 동적이고 상대적인 사회적 공간으로 활성화시킴으로서 새로운 공간을 끊임없이 생성한다.	사회성과 유동성
회고와 예견의 공간성	몸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에 대한 과거와 미래를 실존시킨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공간은 시간과 분리될 수 없으며 회고적 경험이 내제된 몸이 예측되는 미래의 시간과 결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격을 가진다.	시간의 인터페이스
예측불가능의 공간성	즉자적으로 발생하는 지각이 아닌 몸과 공간이 상호작용함으로서 생겨나는 지각으로서 공간에 내재된 체험적 촉매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측불가능의 공간성을 의미한다. 이는 설계자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끊임없이 생성되는 우연의 공간이다.	우연성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3장에서 언급한 분석항목들을 종합하여 아래 <표 5>와 같은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표 5> 소규모 미술관의 현상학적 요소와 공간특성의 분석틀

메를로 퐁티의 공간론	현상학적 요소	소규모 미술관의 현상학적 공간 특성
상·하 <정박>	주변 환경과의 관계와 장소성	<정박>의 관점으로 본 소규모 미술관 건축물의 특성
깊이	**동일한 재료와 형태의 반복** 공간 높낮이 변화 재료의 물성	건축가의 의도에 의한 공간 깊이에 대한 물리적 표현 방법
운동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개구부와 수직동선 램프와 진입로	소규모 미술관의 다양한 동선구성 방법과 공간의 열림과 닫힘의 효과
체험된 공간	자연적 요소의 활용 인위적 환경의 조성	공간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 장치 및 요소

40) 가나 아트센터의 경우 연면적이 3000㎡ 이상이나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본 논문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41) 이찬·김태우,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통해서 본 한국전통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독락당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6, 정기태·이찬, 메를로-퐁티 현상학으로 본 부석사 공간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2, 유선미·김영원·서수경, 강릉 선교장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이론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3 등.

42) 김준성·정태용, 성 이냐시오 채플에 나타난 현상학적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2, p.14

43) 이미경, op. cit.,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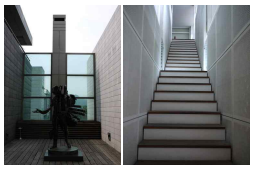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소규모 미술관에 나타나는 메를로 퐁티의 공간론과 현상학적 요소를 살펴보고, 어떠한 현상학적 공간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4.3. 소규모 미술관의 현상학적 요소에 의한 사례분석

(1) 가나 아트센터

프랑스 건축가 Jean Michel Willmote가 설계한 가나 아트센터는 지하2층, 지상2층으로 구성된 건축물로 불규칙한 사각형의 대지에 H자 평면을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매스를 고려한 디테일이 일관되게 사용됨으로써 내·외부의 공간 모두가 일체감을 가지고 있으며 솔리드한 육중한 외관과 보이드한 마당 공간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 건축물의 특징이다. 건축물 내부로의 진입은 1층, 2층, 앞·뒤쪽 모든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내부로 진입하는 관람자에게 공간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편리함과 자유로움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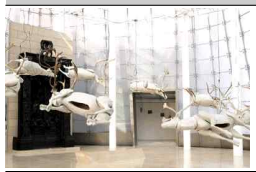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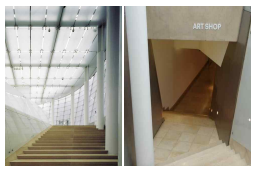
<표 6> 사례1. 가나 아트센터 분석

가나 아트센터	Jean Michel Willmote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28	1998
상·하<정박>		주변 환경과의 관계와 장소성	
		경사진 대지에 건축물의 3면이 도로에 접해있으며 두개의 필지로 나뉜 대지조건을 분절된 매스의 사용으로 해결 하였다. 또한, 건축물이 위치한 북한산 주변의 자연적 요소를 건축에 대입하여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한 장소적 특징을 가진다.	
깊이		동일한 재료와 형태의 반복·재료의 물성	
		진입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동일한 재질과 동일한 크기의 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의 시각적 깊이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내부에서는 공간의 전반에 걸쳐 사용한 유리벽에 의해서 내·외부의 시각적 투명성과 연속성을 극대화 한다.	
운동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수직동선	
		옥상으로 진입하는 상하층을 연결하는 폭이 좁은 계단은 의도적으로 좁게 만들어 상층의 밝음과 하층의 어두움이 대비를 이루며 수직적으로 공간의 열림과 닫힘의 효과를 만드는 요소로 사용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로비는 아트센터의 공적 동선을 묶는 핵심이자 건축가가 생각하는 개방성이라는 공간개념을 읽을 수 있는 장소이다.	
체험된 공간		인위적 환경의 조성	
		가나 아트센터의 핵심은 외부적으로는 매스를 강조하는 닫힘과 내부적으로는 빛과 주변의 자연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열림이다. 공간에서 이러한 내부적 개방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마당이다. 야외 공간은 미술작품 전시 외에 다양한 행사로 다른 장르와의 문화적 교감을 모색하여 관람자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공간의 체험을 하도록 한다.	

(2) 플라토 미술관

KPF의 책임 건축가인 William Pedersen이 설계한 플라토 미술관(구 로댕 갤러리)은 로댕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세계에서 8번째로 개관하였다. 기존의 삼성생명 본사 사옥과 삼성본관, 태평로빌딩의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만들어진 미술관은 상설전시장인 글라스 파빌리온과 두 개의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토 미술관은 다른 미술관과 달리 미술관에 전시될 전시작품이 건축물에 앞서 확정된 후에 그 작품을 수용하기 위한 맞춤형 설계를 진행한 전시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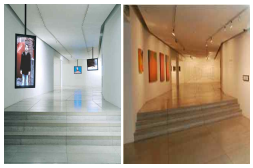
<표 7> 사례2. 플라토 미술관 분석

플라토 미술관	William Pedersen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1998
상·하 <정박>		주변 환경과의 관계와 장소성	
		플라토 미술관은 태평로에 접한 세 건축물 전면의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미술관으로 계획·설계 되었다. 미술관은 전체적으로 로댕의 작품을 모티브로 건축에 적용, 내·외부에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3개의 건축물에 시각적 통일감을 부여 하였다.	
깊이		동일한 재료와 형태의 반복·재료의 물성	
		야외에 전시될 작품을 실내에 배치되도록 하면서 자연스러운 채광을 위해 건축물 전면을 유리로 제작하였다. 그 결과 실내공간은 빛과 재료의 물성에 의해 시각적 깊이감이 극대화 되는 효과를 관람자에게 제공한다.	
운동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수직동선	
		글라스 파빌리온은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관람동선을 유도하는데 작품 '칼레의 시민'이 있는 부분은 유리벽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관람자를 유도하는 동적인 동선을 만드는 반면 '지옥의 문'이 있는 부분은 유리벽이 수직으로 자리하면서 정적인 공간과 동선을 만들어 낸다. 또한, 글라스 파빌리온과 지하층을 연결하는 수직 동선에서는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지하층의 어둡고 협소한 통로공간과 자연광에 의해 밝은 글라스 파빌리온이 대비되면서 수직적인 공간의 열림과 닫힘을 체험하게 만든다.	
체험된 공간		인위적 환경의 조성	
		미술관에 놓인 작품의 특성상 그림과 달리 관람자는 멀거나 가까운 위치 또는 작품 주변을 돌면서 3차원 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미술관의 상징으로서의 조각 작품 외에도 글라스 파빌리온은 한 면을 샌드블라스트 처리한 유리를 사용하여 작품의 배경 역할과 자연광의 유입을 돕는다. 이로 인해 공간이 부유하는 것 같은 효과를 연출하여 탈공간적인 공간감을 체험하도록 한다.	

(3) 아라리오 갤러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라리오 갤러리(구 카이스 갤러리)는 건축가 김종규의 랜드스페이스 개념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건축물 중 하나이다. 'ㄴ' 자의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은 대지의 형상을 건축에 반영한 결과이다. 콘크리트, 유리의 판과 내후성 강판을 주재료로 하는 외벽이 마치 막으로 된 스크린을 보는 것 같으며 어두운 강판, 콘크리트 질감, 유리를 대비시킨 구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건축물이자 조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1층에서부터 전시 공간에 진입하기 위해 지나 가야하는 통로부분인 필로티는 내부공간에 진입하기 전부터 공간에서의 깊이감과 방향성을 만들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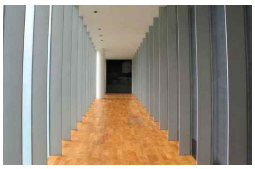
<표 8> 사례3. 아라리오 갤러리 분석

아라리오 갤러리	김종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75길 22	2001
상·하 <정박>		주변 환경과의 관계와 장소성	
		전면 도로에 인접한 거대한 콘크리트 매스는 공중에 띄워 제한된 정면성을 보이며 도로 선과 맞추어 도시의 맥락을 고려하였다. 또한 내후성 강판의 외피로 이루어진 후면의 매스는 인접한 상업공간 건물들의 건축적 배경역할을 함으로써 아라리오 갤러리의 건축적 역할이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깊이		공간 높낮이의 변화	
		전시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높이의 바닥면과 천정높이를 가지고 있어 착시에 의한 공간의 시각적 특성을 변화시킨다. 관람자가 서있는 위치에 따라 전시품을 바라보는 시각적, 공간적인 느낌뿐 아니라 실제 공간의 거리보다 더 멀게 느껴지도록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공간의 깊이감과 공간의 역동성을 함께 느끼게 된다.	
운동		개구부와 수직동선	
		외부에서 내부의 각 공간으로 진입하는 수직동선인 계단은 건축물의 평면 구조와 같은 꺾여진 형태로 만들어져 수직 동선인 동시에 시퀀스를 통한 시각적인 경험 장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두 개의 전시공간을 연결하는 좁은 개구부는 두 공간을 이동하는 관람자에게 다음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공간에 진입하는 순간 실제의 공간보다 훨씬 넓고 높은 공간에 들어선 것과 같은 공간의 열림과 닫힘의 효과를 체험하게 된다.	
체험된 공간		인위적 요소의 활용	
		인공광과 자연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흔적이 눈에 많이 띈다. 앞서 계단실에서도 상부의 자연광이 동선을 유도하는 요소로 연출된 것처럼 건축가의 의도에 의해 공간 곳곳에 빛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시 공간 내부에서도 천정의 단 차이를 이용한 인공광의 간접적 사용은 자연광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으며,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일순간 그 부분을 탈공간화 하는 효과를 연출한다.	

(4) 의재 미술관

건축가 조성룡과 김종규의 협동 설계로 이루어진 미술관은 의재 허백련의 작품과 작가의 시대적, 학문적 연구를 위한 자료 및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 개관했다. 의재 미술관은 풍경 속의 미술관이라는 기본 컨셉으로 무등산 등산로의 지형적 요건을 그대로 살려 친환경화적 공법으로 지어졌다. 미술관으로 진입하는 좁고 긴 경사로는 건축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보다 자연스럽게 관람자들을 전시공간으로 유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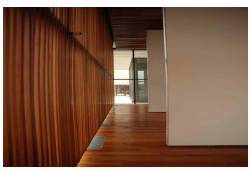
<표 9> 사례4. 의재 미술관 분석

의재 미술관	조성룡 김종규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81	2001
상·하 <정박>		주변 환경과의 관계와 장소성	
		경사로를 따라 전시동, 삼애헌, 관리동의 순서로 직렬 배치된 세 개의 건축물은 경사로와 담으로 구성된 긴 기단 위에 놓여 있으며, 주변의 풍경과 공존할 수 있는 크기로 조정되어 있다. 건축물의 재료 또한 주변의 자연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유리, 적삼목, 산석을 쌓은 담과 기단으로 이루어 졌으며 습기가 많은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깊이		동일한 재료와 형태의 반복, 재료의 물성	
		내부공간의 경사로는 양쪽이 불투명한 유리로 막혀 있지만 재료의 물성에 의해 빛은 통과되기 때문에 다른 곳 보다 밝다. 이로 인해 상설전시실은 통로공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인지되어 공간의 깊이감이 만들어 진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철재 프레임은 열주와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공간의 깊이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운동		진입로와 램프	
		외부의 경사로는 내부공간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하여 브릿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의 브릿지는 공간을 수직으로 나누어 1층을 지하층처럼 연출하는 효과는 물론 2층의 전시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건축적 산책로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외부 진입에서부터 건축가가 의도한 다양한 시퀀스를 경험하게 된다.	
체험된 공간		인위적 환경의 조성	
		건축물을 외부에서 바라보면 1층이 유리로 마감되어 적삼목으로 마감된 매스가 공중에 떠서 부유하는 듯 한 효과를 체험하게 된다. 또한 관람자 중심에서는 외부에 있으면서도 이미 건축물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유발시킨다. 이외에도 불투명한 유리로 마감된 경사로를 통해 관람자는 내·외부 경계의 모호함을 느끼며 탈공간적인 공간감을 경험하게 된다.	

(5) 이응노 미술관

프랑스 건축가 Laurent Beaudouin이 설계한 이응노 미술관은 고암 이응노의 작품을 수집, 전시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목표로 개관하였다. 건축물은 한국성을 강조한 이응노의 예술관을 건축의 조형구조로 상징화 하였다. 처마와 서까래의 형태를 강조한 지붕의 디자인은 미술관의 볼륨을 극대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소나무와 중정을 건축에 대입하였다. 이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며 상징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표 10> 사례5. 이응노 미술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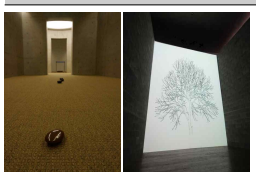
이응노 미술관	Laurent Beaudouin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	2007
상·하 <정박>		주변 환경과의 관계와 장소성	
		엑스포 과학 공원과 행정시설단지 사이의 자연녹지 공간에 위치하여 기존의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과 함께 문화벨트를 형성한다. 외관의 순수한 조형미는 백색콘크리트 재료의 사용과 어우러져 주변건물과 차별화되는 순수한 조형미를 연출하고 있다.	
깊이		동일한 재료와 형태의 반복·재료의 물성	
		공간을 구성하는 천정, 벽, 바닥이 전시를 위해 분할한 가변벽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재료로 마감하여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중에서도 벽면의 수직 루버는 동일한 재료와 형태의 반복에 의한 효과로 인해 관람자가 서있는 위치에 따라 공간의 깊이감에 변화를 준다. 또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투명한 창에 의해 그 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다.	
운동		램프	
		이응노 미술관의 내부 동선은 의재 미술관과 비슷한 좁고 긴 경사로를 공간에 사용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다영한 시퀀스를 경험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외부에 접한 경사로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공간이 면해있어	

	자연적 요소를 실내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체험된 공간	자연적 요소의 활용
	소나무의 사용은 단순한 상징성 외에도 건축물이 가지는 무형의 영역을 지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다양한 자연적 이미지를 실내공간까지 확장시켜 전시되는 작품과 공간전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도록 만드는 공간 장치로 사용되었다.

(6) 지니어스 로사이

지니어스 로사이는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 리조트 내에 위치하는 전시시설로 건축가 Ando Tadao가 설계 하였다. 지니어스 로사이는 건축과 대지와의 관계를 중요한 설계 요소로 생각한 건축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상징성 있는 건축물이다. 또한, 전시공간과 명상의 공간이 함께 위치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각자 다른 공간을 체험하게 하는 건축가의 설계의도에 따라 공간이 구성된 것이 건축물의 특징이다.

<표 11> 사례6. 지니어스 로사이 분석

지니어스 로사이	Ando Tadao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성리 182 섭지코지	2009
상·하 <정박>		주변 환경과의 관계와 장소성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 이라는 뜻의 지니어스 로사이는 지상으로 드러난 노출콘크리트의 거대한 매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위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성산일출봉을 차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적 특징을 가진다.	
깊이		동일한 재료와 형태의 반복	
		지니어스 로사이는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이공간으로써 4개의 주제로 조성된 정원을 지난 이후 수벽을 지나 전시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진입과정에서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공간을 구분하기위해 같은 형태의 개구부를 중복시킨다. 다른 재료의 개구부와 벽은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도 하지만 중첩의 효과로 인해 보다 풍부한 깊이감을 연출한다.	
운동		진입로	
		건축가의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특유의 시퀀스를 유발시키는 진입로는 매끈한 콘크리트 매스와 거친 현무암의 벽이 대비를 이루며 그 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다. 좁은 진입로는 건축물의 형태를 따라 돌아가는데 다음 공간에 대한 호기심은 물론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관람자는 진입로를 통해 이동할 때마다 극적인 건축적 신비감을 경험하게 된다.	
체험된 공간		인위적 환경의 조성	
		지상에서 지하를 향하는 공간 구성은 물론 좁은 틈을 통해 공간으로 스며드는 자연광은 콘크리트 면에 비치며 건축적 신비로움을 제공한다. 또한 미디어 아트를 통해 공간적 신비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소규모 미술관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표 12>는 사례 소규모 미술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학적 요소이다.

<표 12> 사례 소규모 미술관의 현상학적 요소

	가나 아트센터	플라토 미술관	아라리오 갤러리	의재 미술관	이응노 미술관	지니어스 로사이
상·하 <정박>	각 사례 마다 건축가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대지와의 맥락과 장소적 의미가 건축물에 잘 반영되고 있다.					
깊이	동일한 재료와 형태의 반복 · 재료의 물성		공간의 높낮이	동일한 재료와 형태의 반복		
				재료의 물성		-
운동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계단실		개구부 계단실	진입로 램프	램프	진입로
체험된 공간	인위적 환경의 조성				자연적 요소	인위적 환경의 조성

첫째, 상·하<정박>의 요소에 따라 분석한 미술관은 각각의 미술관 마다 서로 다른 환경적 요건은 물론 설계한 건축가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과 전체적인 평면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사례의 미술관들은 공통적으로 대지와의 맥락과 장소적 의미가 건축물에 잘 반영되고 있다. 둘째, 각각의 미술관에서 표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깊이 요소에 의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나 아트센터와 플라토 미술관, 의재 미술관, 이응노 미술관은 동일한 재료와 형태의 반복과 재료의 물성에 의해 실내로 유입되는 빛의 영향으로 공간의 원근이 모호하게 되는 물리적 깊이감의 변화를 공간에 연출 하였다. 아라리오 갤러리는 공간의 높낮이 변화 효과를 사용하였고 지니어스 로사이는 동일한 형태의 구조물을 사용하여 공간의 깊이감을 표현 하였다. 셋째, 운동의 요소에 의한 분석은 미술관마다 건축가가 의도한 시퀀스에 의한 다양한 동선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공간의 열림과 닫힘 효과는 가나 아트센터, 플라토 미술관에서는 수직동선과 밝고 어두움의 대비로 연출하였고, 아라리오 갤러러리는 좁은 개구부를 이용하였다. 또한, 의재 미술관, 이응노 미술관, 지니어스 로사이는 건축적 산책로의 역할을 하는 램프와 진입로를 활용하여 운동 요소의 현상학적 체험을 극대화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험된 공간 요소에 의한 분석에서는 가나 아트센터, 플라토 미술관, 아라리오 갤러리, 의재 미술관, 지니어스 로사이는 인위적인 체험 환경을 조성하여 탈공간적인 효과를 연출하고 있으며, 이응노 미술관에서는 상징적 요소인 소나무와 자연적 요소인 중정을 사용하여 체험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분석한 내용을 통해 살펴 본 것과 같이 소규모 미술관

은 규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상학적 공간 체험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공간에 반영하였다. 특히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다음의 미술관들은 대지의 맥락은 물론 장소적 의미를 건축에 반영하여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건축물 외부에서부터 현상학적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가나 아트센터와 플라토 미술관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미술관에서는 자연광의 과감한 사용과 건축물에 어울리는 재료의 사용으로 공간의 물리적 깊이감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깊이의 요소와 함께 운동의 요소는 무엇보다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감을 바꾸는 대표적 현상학적 요소이다. 모든 미술관이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시퀀스 변화를 고려한 동선을사용 했으며 공간의 열림과 닫힘의 효과를 연출해 공간을 역동성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까지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바탕으로 소규모 미술관과 실내공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학적 체험 요소의 특성과 표현 방법을 파악해보았다. 그러나 현상학적 요소로 분석하는 소규모 미술관은 그 특성상 다양한 관람자의 체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 방법 외에도 다양한 관람자의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한 다각적인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소규모 미술관의 연구를 통해 향후 소규모 미술관의 계획에 있어 현상학적 체험요소를 반영하는데 효율적인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M.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002
2. 박영욱,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9
3.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000
4. 건축자료연구회, 건축설계자료실례집 13, 보원, 1992
5. Steven Holl, 'Intertwin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6. Zevi Bruno, ARCHITECTURE AS SPACE 공간으로서의 건축, 강혁 역, 집문사, 1989
7. 김홍기, 건축 조형 디자인론, 기문당, 2001
8. 김광현,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으로 조명한 한국전통 건축의 공간적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7
9. 서상우, 현대의 박물관 건축에 관한 계획적인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88
10. 박석수, 미술관 건축의 규모계획을 위한 면적배분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94
11. 이성훈, 공간구문론적 해석에 의한 미술관 공간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8
12. 김홍수,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으로 조명한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건축 공간 개념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2
13. 곽문정,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지각 방법을 통한 체험된 건축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권 1호, 2005
14. 최진석, 국내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공간 체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2권 3호, 2010
15. 신호재, 현상학적 공간구성에서 '깊이' 지각 후설의 '촉발적 부조' 와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여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64권, 2010
16. 홍유선, 시각구조분석에 의한 건축공간의 깊이 연구, 대한건축학회 연합논문집 13권 1호, 2011
17. 이미경, 현대 공간디자인에서의 현상학적 특징과 가능성 :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1
18. 김준성·정태용, 성 이냐시오 채플에 나타난 현상학적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2

[논문접수 : 2014 04. 02]
[1차 심사 : 2014. 05. 21]
[게재확정 : 2014. 06. 13]